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장로들을 세움

사도행전 14:19-23, “. . .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사도행전 14장의 본문을 보자.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이방 세계를 위한 선교사로 세움을 받고 파송을 받아 소아시아 지방, 곧 오늘날 터키 지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을 얻었고 곳곳에 교회들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셨고 그를 사용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각 곳에 있게 하셨다.

그러나 그를 반대하고 핍박하며 죽이려 하는 자들도 있었다. 핍박자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많았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도 유대인들은 그를 돌려 쳐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일어나 더베로 가서 전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 핍박은 있었으나 구원받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

또 그는 그가 전도했던 여러 도시들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고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였다.

사도 바울은 각 지역의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 ‘택하다’는 원어(케이로토네오)는 ‘손을 내밀다’는 뉘앙스를 가진 말로 ‘선출하다, 임명하다’는 뜻이다. 그들이 장로들을 세울 때 아마 후보들을 추천하고 손을 내밀어 찬성을 표했을 것이다.

또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울 때 금식 기도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양들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직무는 매우 엄숙한 직무이며 또 고난을 각오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사도 바울은 그 장로들을 그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께 부탁하였다.

로마서 12장(신약성경 256쪽)의 말씀을 보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고, 몸에는 머리와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 등의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 그

러므로 3-5절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했다.

12:6-8을 읽어보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勸慰)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본문은 특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와 직분 중에 섬기는 일과 권위(勸慰)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말한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며, 그 중에는 권위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이 있다. 다스리는 일이 목사와 장로가 하는 일이며 권위(勸慰)[권면과 위로]하는 일이 목사와 장로와 함께 권사와 권찰이 하는 일이다.

장로교 헌법에 보면, 장로직에 대해, “율법 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느니라[다스리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 장로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또 권사직에 대해서는, 그 자격은 “여신도 중 만 50세 이상된 입교인으로 무흠히 다년간 교회에 봉사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며, 그 직무는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곤난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본다”고 말했다. 그것은 권면과 위로의 직무이다.

디모데전서 3장(신약성경 338쪽)으로 가보자. 3:1-7을 읽어보자.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장로직은 감독직과 동일하다. 사람이 장로직을 얻으려면 선한 일 즉 성경이 가르치는 일들을 사모해야 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장로는 교

리 사상에 있어서나 인격이나 삶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장로는 건전한 정신과 자제심이 있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여 존경받을 만한 자이어야 한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장로는 후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진리의 지식이 있어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장로는 술을 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장로는 남을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며 다투지 않아야 한다.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장로는 돈을 사랑치 않아야 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장로는 부모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자녀들에게 바른 교훈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세대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패역한 세대이다. 여기에 우리의 부족과 탄식이 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장로는 다년간 지교회에서 신앙과 행실의 본을 보인 자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직분을 쉽게 받으면 교만해지기 쉽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울무에 빠질까 염려하라”—장로는 동네나 직장이나 친구 등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서도 좋은 증거를 얻은 자이어야 한다.

3:11에 보면, 장로의 아내에 대한 말씀도 있다. “여 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장로의 아내들도 단정하고 품위가 있고 존경할 만해야 하며 함부로 남을 비방하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이어야 한다. 아내들의 덕스러운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중요한 직분인 장로들 몇 분 선출하는 일을 한다. 우리는 이 일을 신중히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자.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자.

특히 장로의 자격에 대한 교훈은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이 된다. 그것은 우리의 성화의 목표와 같다. 우리 모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교리 사상에 있어서도 그러해야 하고 우리의 인격과 삶에 있어서도 그러해야 한다. 그것이 온전함이며 영적 성숙함이다. 또 우리는 건전한 정신과 자제심과 단정함, 존경할 만한, 그리고 범사에 선한 인품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덕이다. 장로들이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고 권면하고 인도하고자 할 때 이런 덕목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우리 중에 비교적 이런 자격을 가진 자를 장로로 세워야 하고 또 세움 받은 자들은 두려움으로 이런 덕을 갖추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과 성경말씀을 주아로 읽고 묵상함으로써 이런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일오후설교 장로들에게 주신 교훈

사도행전 20:28-32,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28-32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준 교훈이다(행 20:17).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삼가라’고 교훈하였다.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목양자로서 조심하라는 것이다.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들을 치는 목양자들이다.

모든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죄를 멀리하고 의와 선을 행해야 하고, 또 장로들은 주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 즉 하나님의 양 무리를 잘 보호하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한다. 장로는 성령께서 성도들 가운데서 감독자로 세우시고 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신 자들이므로 이 직무를 두려움으로 수행해야 한다.

둘째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기억하라’고 교훈하였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3년 동안 주었던 바른 교훈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29-31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

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혼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교회 안에는 때때로 이단사설들을 퍼뜨리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일이 있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바른 교훈에 굳게 서야 한다. 바른 교훈은 역사적 기독교라고 부르는 교훈이다. 저는 그 교훈을 성경강해, 기독교 교리개요, 기독교 윤리, 현대교회문제의 책들에 담았다. 적어도 이 교훈을 잘 붙들고 성경의 바른 교훈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의지하라’고 교훈하였다. 본문에서 그는 그 장로들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뜻을 포함한다고 본다.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하나님(전통본문)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 안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은혜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 진리만 의지하자. 신구약 성경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모든 말씀을 다 믿고 확신하고 힘써 실천하자.

베드로전서 5장으로(신약성경 382쪽) 가보자. 5:1-4는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준 권면이다.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다음 세 가지 마음으로 하라고 교훈하였다.

첫째로, 베드로는 ‘지원함으로 하라’고 교훈하였다.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전통본문에는 생략됨) 지원함으로 하며.” 장로들은 목양의 직무를 행할 때 부득이함으로 즉 억지로나 의무감 때문에 하지 말고 지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교훈한 것이다.

둘째로, 베드로는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교훈하였다. 2절,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즐거운 뜻으로’라는 원어(프로뉘모스)는 ‘준비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라는 뜻이다. 교회 봉사는 어떤 물질적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당회는 교회 헌금을 친교의 명분으로 오락

적 용도에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성도들의 귀한 헌금은 진도와 구제를 위해 신중히 집행되어야 하며 친교를 위해서는 최소의 지출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베드로는 ‘본이 되라’고 교훈하였다. 3절,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교회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3:11-12,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교회에서 장로들은 모든 성도들을 섬기며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려 해야 한다.

사도 베드로는 4절에서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 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말했다. 교회의 목자장 되신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충성한 장로들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시간 성경의 두 곳에서 장로들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의 교훈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 베드로의 교훈이다.

사도 바울은 첫째로 자신을 위해 또 목양의 직무를 위해 삼기라, 즉 조심하며 행하라고 했고, 둘째로 바른 교훈을 기억하고 이단사설들을 경계하라고 했고, 셋째로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했다.

사도 베드로는 양 무리를 치되, 첫째로 억지로 하지 말고 지원함으로 하고, 둘째로 더러운 이를 구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셋째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 무리에 본이 되라고 했다.

이 두 사도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두 분 장로들과 오늘 임직하는 장로들과 권사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된다.

수요설교

포도원 같은 교회

[아가서 8:8]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본질은 친구들의 말이라고 본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성숙한 신자들이 볼 때 초신자거나 유대인들의 교회에서 볼 때 장차 교회에 편입될 이방인들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보인다. 그는 아직 어리며 결혼할 만큼 성숙되지 못하다. 그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할 만하지 못하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

받을 때 성숙한 신자들 혹은 유대인들의 교회는 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은 그에 대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도리어 그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영접하고 그를 위로 격려하며 그의 약한 믿음을 북돋우어 주어야 할 것이다.

[9절] 그가 성벽일진대 우리는 은 망대(티라)[홍벽=튼튼한 자국 난간]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대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초신자가 굳게 믿었다 할지라도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예상되므로 성벽에 은 망대를 세우듯이 그를 영적으로 더욱 견고케 해야 할 것이며 마귀와 악한 자들이 그의 마음 속으로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 문을 백향목 판자로 튼튼하고 견고하게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 먼저 믿은 자들, 성숙한 신자들이 힘써야 할 의무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히 3:13)고 말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교훈하였다(살전 5:14).

[10절]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shalom)[평안을 얻은 자] 같구나.

본절은 신부의 말이라고 본다. 신부는 교회를 상징할 것이다. 신부는 자신을 성벽이라고 표현한다. 성벽은 도시를 원수의 침공으로부터 방어하는 벽이다. 옛날의 도시들 중에는 성벽 있는 도시도 있고 성벽 없는 도시도 있었다. 성벽으로 묘사된 교회는 견고한 교회이다. 그것은 확실한 지식과 굳센 믿음과 견고한 소망을 가진 교회이다.

신부의 유방은 망대 같다고 표현된다. 신부의 유방은 교회의 말씀의 봉사자들, 즉 목사들과 전도자들을 가리킬 것이다. 신부의 우뚝 솟은 유방은 망대에 비유되었다. 망대는 적의 동태를 살피고 분별하여 대처하는 용도로 쓰이는 곳이다. 이와 같이, 교회의 목사들은 굳건한 믿음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들을 교훈하며 인도해야 한다.

신부는 신랑 보기에 “평안을 얻은 자와 같다”고 고백한다. 주께서는 그를 진실히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평안을 풍성히 주신다(사 26:1-3; 요 14:27).

[11절] 솔로몬이 바일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이사야 7:23은 포도나무 1주에 은 1개씩의 가치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의 포도원은 포도나무가 1천 주나 되는 포도원일 것이다. 그의 포도원은 크고 거기서 일

하는 농부들도 많았을 것이다. 솔로몬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본다. 교회는 큰 포도원과 같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풍성한 실과를 바쳐야 한다.

[12절]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실과 지키는 자들 혹은 포도원 농부들은 교회의 목사들과 전도자들을 가리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풍성한 선한 열매들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은 1천 개로 표현된다. 그러나 포도원의 농부들에게도 은 2백이 돌아간다고 표현된다. 그것은 교회의 일꾼된 주의 종들에게 주어질 상을 가리킨 것 같다.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라는 말은 신랑의 말일 것이다. 교회는 주 예수께서 친히 피흘려 사신 그의 특별한 소유이며 영원토록 그러하고 밤낮 또 세상 끝날까지 그의 보호와 돌보심을 입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오른손으로 일곱 별[교회의 목사들]을 붙잡으시고 일곱 금 촛대[교회들] 사이로 다니신다.

[13절] 너 동산간님(ἄρσην)[동산산들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신부는 신랑이 빨리 달려오기를 원한다. 신랑은 지금 신부를 떠나 있으며 신부는 그를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다.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교회를 떠나 계시며 교회가 그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갈망하는 것과 같다. 성도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이다(딤후 4:8). 주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고(계 22:7, 12, 20) 우리는 그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소망한다.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은 처음 믿는 자들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그들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성벽같이 믿음과 소망을 굳게 가지자. 또 원수 마귀의 계기와 악한 일들을 분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소유하시고 보호하시고 관리하시는 포도원과 같다. 우리는 그를 위해, 그의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음성으로 하나님께 이되자. 우리는 주님께 회개와 신앙고백, 찬송과 기도, 복음 전파의 목소리를 올리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자(고전 15:22; 롬 14:7-8). 또 그의 재림을 사모하자.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는 진실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